

*첨부자료1. 산별 전환 투표과정에서 사측이 행한 부당노동행위

▲현대자동차

회사는 28일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봅시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고유가, 시장점유율 하락, 분규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 “경제지표가 하향곡면인데 파업을 한다는 게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내용으로 노조의 파업을 비난하였다. 뒷면에는 보수일간지 조선일보, 동아, 중앙, 매일 경제 등에 실린 산별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사설을 복사하여 배포하였다.

이에 앞서 28일 오전에는 산별노조에 반대하는 한 대의원이 발표했던 반대 대자보를 도장 2부의 회사 관리자가 복사를 해서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가 노조간부들에게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한편 회사는 내부적인 방해공작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외부적인 방해공작을 하고 있으며 5월부터 울산의 지방신문인 경상일보, 광역일보, 울산매일에 정몽구 살리기, 노동조합 비판이 계속 실리고 있다. 또한 지방신문에 현대자동차 전면광고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현대미포조선

6월부터 회사가 벤치마킹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몇 명씩 삼호중공업에 보내서 그 쪽 회사의 산별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와서 현장에 퍼뜨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남정환 대의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남정환 대의원(010-3337-8715)은 지금 통원치료 중이다. 그러나 회사는 아직까지 공개사과는 커녕 가해자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20일부터 노조는 사측의 방해공작을 뚫고 산별전환 승리를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현재 산별전환찬반투표 중이다.

<울산노동뉴스기사>

현대미포조선, 상급자에 의한 대의원 폭행사건 발생

산별전환 관련, 회사측의 '산별벤치마킹(?)' 과정에서 벌어져 , 정기에 기자(6월 19자)

현대미포조선노조가 6월 28일부터 3일간 산별노조 조직전환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측의 방해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상급자이면서 조합원이기도 한 팀장이 노조 대의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노조는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 "노조 내부 행사인 산별노조 규약변경에 왜 회사가 관여하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19일자 소식지 '함성'을 통해 "송재병 사장은 진상 규명과 함께 공개사과 할 것과 윤 모 차장에 대한 징계해고를 요구하고, 폭행당사자인 김 모 팀장은 노조 규약에 의거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측의 벤치마킹이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산별방해 공작인 벤치마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폭행사건의 발단은 회사측이 '벤치마킹'이라는 명목하에 현재 금속노조에 가입해 있는 현대 삼호중공업 조선소에 관리자와 대의원, 조합원 등을 보내 산별에 대한 부정적인 교육을 받고 오게 한데서 비롯됐다.

현대미포조선노조 남정환 기장부 대의원대표는 지난 14일 회사측 관리자인 윤 모 차장과 조합원인 김 모 팀장 등 4명이 목포에 있는 삼호중공업 조선소를 방문, 다음날인 15일 저녁 술자리에서 산별관련으로 부서팀장과 인쟁을 높이던 중 팀장이 얼굴을 맥주잔으로 가격해 이마에 20바늘을 꿰매고 귀 연골이 파손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남정환 대의원에 따르면 "삼호중공업 조선소에 가서 이미 산별로 전환되어 금속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간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려고 갔으나 노조간부들은 아예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삼호측 관리자의 산별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만 들었다"고 한다.

남정환 대의원은 "대의원 대표로서 객관적으로 산별노조에 대해 알고 싶어서 갔는데 그쪽(삼호)의 관리자만 나와서 '산별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만 되풀이했다"며 "이건 회사측이 벤치마킹이라는 이름 하에 저지르고 있는 노조의 산별전환 방해활동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5일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해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이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부서의 팀장을 폭행하면 바로 해고 일뿐만 아니라 쌍방폭행이라면 그 팀장도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멀쩡한 얼굴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냐"는 것이다.

남정환 대의원은 자신을 폭행한 팀장에 대해 노조에 '조합원 제명 및 직위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준) 또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폭행 당사자 및 관련 최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준)는 "이번 폭력사태는 그간의 폭압적인 노무관리가 불러온 결과이며 민주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동조합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노동조합은 폭력행위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자를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폭행 당사자와 가담자, 그에 관련된 최고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미포조선 사측은 노조의 산별전환 총회를 앞두고 '벤치마킹'이라는 이름하에 실시되는 출장교육외에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반별 교육 등을 통해 노골적인 방해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대우자동차

현장 관리자들의 입을 통해서 "산별은 너무 이르지 않냐"는 소문이 퍼졌고, 직장과 부장급인 조합원들에게 투표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이들 중 1/3정도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1~2 곳 현장에 코러스(사내 네트워크)를 통해 매일경제, 한국경제에 실린 산별 관련 악의적 기사를 스크랩해 현장에 뿌린 것을 발견했다. 이에 노조는 "우리는 부결되어도 또 한다 각오하라"는 내용의 긴급성명서를 냈다.

▲로템

로템회사는 27일 회사 모 부서(2개 부서)에서 한국경제신문 26일자 산별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산별전환 기업이 준비중이다”를 배포했다.

“노동자들이 회의적이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등의 악의적 선전물에 대한 제보 받은 노조간부들이 수거하고 책임자를 찾아가서 몸싸움을 벌였다. 그 결과 공장장의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받아냈다. 로템노조 현병수 교육부장 (011-841-7923)

▲대우조선

회사가 작업을 했다는 정황은 있는데 뚜렷한 증거는 잡아내지 못했다. 다만 평소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하는 조합원들이 줄을 서서 투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보인 적이 없다.